

민주-조국혁신당, 10·16 재선거 '호남 총력전'

조국당, 영광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조국 "새 바람·새 변화 결의 더 강해"

민주, 23일 영광·곡성 현장 최고위
이재명 2기 지도부 첫 시험대 '사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10월16일 치러지는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호남 쟁탈전'에 나섰다. 양 당은 경쟁적으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호남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번 재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19일 장현 영광군수 후보 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조국 대표는 최고위에서 "(영광군수 재선거가) 이른바 '나비 효과'의 출발점이며 장 후보가 당선되는 순간 호남 전체에 태풍이 불 것"이라며 "영광군수 배출을 위해 총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후보가 군수가 되면 혁신당 의원 12명이 명예 영광군수가 돼 함께 호흡을 맞출 것"이라며 "혁신당의 조직은 민주당에 비해 못하지만, (호남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는 결의는 민주당보다 강하다"고 승리를 다짐했다. 조 대표는 또 "명절 휴가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매우 불쾌한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씨의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의 '스모킹 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윤 정권의 검찰이 이들을 수사할 리 없다. 특검만이 답"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현재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등 3곳에 후보를 냈는데, 상대적으로 호남지역 승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조 대표는 지난 13일부터 곡성과 영광에서 '월세살이'를 하며 숙식 선거운동을 해오는 등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혁신당은 22대 총선 비례 투표에서 영

광 39.46%·곡성 39.88%의 득표율을 기록해 더불어민주당연합이 얻은 영광 40.14%·곡성 41.13%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등 경쟁력을 보여왔다.

다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4·10 총선 당시 유권자의 1인 2표를 전제로 한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 투표는 조국혁신당) 전략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쟁력을 보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중앙당 차원의 지원 사격에 나선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3일 영광·곡성, 25일 부산 금정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재보선 후보자 등록 기간을 앞두고, 중앙당에서 내려가 현장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재보선은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의 선거는 포함되지 않은 '미니 재보선'이다. 하지만 총선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이자, 이재명 대표 2기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실시되는 재보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혁신당이 이번 재보선 준비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민주당은 두 지역 재선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판단 아래, 지도부 첫 현장 방문으로 전남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광과 곡성에서 치러지는 재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두 곳중 한 곳이라도 혁신당에 넘겨주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물론 '2기 지도부'에 적잖은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당의 텃밭인 전남에서 혁신당이 당세를 키울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게된다.

현재 영광은 추석 연휴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혁신당 장현 후보가 민주당 장세일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등 양당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김선욱·정성현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왼쪽 세번째) 대표가 19일 장현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사무소를 찾아 두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있다.

정성현 기자

전남도, 친환경 선박기술 '녹색해운항로' 구축

내년 신규 국비 2건 597억원 확보
목포 남향 연안선박 클러스터 탄력
연료 공급기술·화재 대응설비 개발

전남도가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을 통한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나선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 남향 일대에 구축 중인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 및 연관사업 국비를 확보, 대한민국 탄소중립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을 통한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 2025년 신규 국고 사업 2건 597억원(국비 497억원)을 확보했다. 국비 반영 사업은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선박 연료 공급기술 개발 및 국제협력 기반 조성 299억원(전액 국비) △친환경 연료 화재폭발 안전성 평가 및 대응설비 개발 298억원(국비 198억원)이다.

녹색해운항로는 해상 운송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항로로, 무탄소 연료나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국제 해운 및 조선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정부 역시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해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친환경 연료공급 실증, 표준화된 공급 절차와 안전 지침 마련 등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2020-2024년) △친환경 대체연료 실증기술 개발(2021-2025년)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기술 개발(2022-2026년) △친환경 선박용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2022-2031년) 등 4건, 총 156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중진시험동, 관제유지보수시험동, 친환경연료연구동, 국제협력 및 복지동, 전력시험동 등 육상 연구지원 기반 구축도 2026년 상반기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국내 연안선박이 서남권에 집중해있고 조선업이 지역 주력산업인 만큼 '친환경 연안선박 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의 새 성장동력이 되도록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목포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조선 및 기자재 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친환경 선박 산업 전후방 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The 14th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



Civic Space and Human Rights Cities 시민공간과 인권도시

2024. 10. 10.(목) - 10. 11.(금)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최 |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UNITED NATIONS HUMAN RIGHTS, unesco,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 광주국제교류센터, UCLG, RAOUL WALLENBERG INSTITUTE